

총본산 성역화 사업 본격화 된다

(역사문화관광자원조사)

절차 90% 넘겨...추진위 현판
상임부위원장 해충스님 위촉
11월 16일 '모연의 밤' 개최

조계사 일대를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조사 사업이 추진위원회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조계종 역사문화관광자원조사사업추진위원회(총본산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조계종 전법회관 7층에서 추진위원회 현판식을 봉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사무실 이전 및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성역화 불사의 성공적인 회향을 위한 종단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종단 핵심과제인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10·27법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종단과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통해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구체화됐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내년까지 조계사 주변 토지매입 절차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판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성역화



지난 25일 조계종 전법회관 7층에서 열린 조계종 역사문화관광자원조사사업추진위원회 현판식.

사업은 제33대 총무원장 취임과 동시에 6년 동안 준비해 온 사업"이라며 "(성역화를 위한) 업무적, 행정적인 일이 모두 마무리됐다.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시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및 모연위원장에 전 포교위원장 해충스님을 위촉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성역화 불사를 위한 행정절차가 90%를 넘겼다. 마지막 불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스님

께서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해충스님은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셨다. 상임부위원장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일력과 신심만 있으면 잘 될 것이다. 종정에 하와 총무원장 스님을 잘 모시고 단합된 힘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해충스님 위촉을 계기로 앞으로 성역화 불사를 위해 종도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며, 오는 11월16일 서울 AW컨벤션에서 모연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대화합 위해 멸빈자 사면 논의 필요”

원로의장 밀운스님, “대중공사 통해 시작”
중무기관 및 산하기관장 스님들에게 당부



자신의 경험"이라며 "멸빈자 문제를 자비문중단계, 화합문중으로 잘 풀어야 한다. 종단의 대화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현행 종헌상 멸빈자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이 불가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사진)이 중앙중무기관 및 산하기관장 스님들에게 종단 화합을 위해 멸빈자 사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로회의의장 밀운스님은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중무기관 부실장 및 산하기관장 스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호계원장 자광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 자성교새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 등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원로의장 스님은 의현스님 제삼 논란을 계기로 공론화된 멸빈자 사면 문제에 대해 평소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밀운스님은 불교가 자비문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승자는 패자를 관용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이 과거

"100인 대중공사를 통해 멸빈자 사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첫 시작으로 가능하겠다. 특별법을 만들어 종단대화합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을 중앙중무기관 및 산하기관장 스님들에게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은 "현재 대중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종단으로서 중요하다"며 대중공의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은 "연료하신 몸이 이끌고 소원이 대중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감동이다. 종회에서 사면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선학원 정관 원상회복 위해 소송 진행”

‘정상화추진위원장’ 범등스님
기자간담회서 법적대응 시사



된 주장은 현 집행부와 대화하지 않겠다, 역사성을 이해하는 집행부가 들어 서면 대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종단 뜻 동참 분원 미등록법인
피·선거권 외 권리제한 '유예'

지난 2013년 4월 선학원이 이사회에서 '조계종 중지종등을 봉대한다'는 내용을 정관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해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범등스님(사진)이 선학원을 상대로 정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가 없자 사실상 마지막 방법으로 법적대응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범등스님은 지난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직할교구사무처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범등스님은 "정상화 추진위원장을 맡고 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성이 미치지 못했다. 더 이상 진척이 없다. 주변의 인맥을 동원해서 중재 역할을 요청했지만 선학원 측의 계속

이러 스님은 법인등록을 거부한 채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선학원의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뒤,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선학원 정관에 '조계종의 중지종등을 봉대한다'는 내용과 '원인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문구를 다시 되살려 종단과 선학원이 분열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판단에서다. 범등스님은 "그동안 선학원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다. 원로의원 스님들과 총무원장 스님의 초청 간담회에도 응하지 않았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선학원 정관에 중지종등을 봉대하고, 선학원 이사 자격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그것이 선학원의 홀로서기를 막는 길이며 선학원 역사 의욕을 해소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정관개정 원인무효와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단 대표자로 선학원 당시 설립에 참여했던 종단 사찰,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종단의 노력에 뜻을 같이 하는 선학원 분원 등이 소송에 동참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辭令

命 박부영 영남본부장

命 채석봉 영남본부 근무

2015년 9월 1일자

“역량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한국 불교언론 최고의 역사, 역목물을 자랑하는 불교신문은 문서를 통한 불법홍포를 목적으로 우리사회에 행복과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한 장의 불교신문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기치아래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불교신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모집 부문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채용형태	응시자격
취재기자	0명	정규직/경력	불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2. 전형 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 모든 전형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3. 지원 방법

본사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이메일: bud22@bulgyo.com)

4. 접수 기간

2015년 8월 25일(화) ~ 9월 1일(화) 18시 까지

5. 제출서류

-이력서(불교신문사 제공 양식), 자기소개서(12p작성, A4 3장 내외), 주민등록등본, 최종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조계종 신도증 사본 또는 재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기타 경력증명서 각1부

6. 접수 처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7(경자동) 불교신문사 업무국 ☎ 02-730-4489

7. 유의사항

1) 최종 합격자는 불교신문 또는 인터넷 불교신문(www.bulgyo.com)을 통해 발표합니다.

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8. 문의 처

불교신문사 업무국 관리부 ☎ 02-730-4489

불교신문사

전통산사 문화유산가치 조명

9월4일 제2차 학술회의 개최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는 오는 9월4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 전통산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를 주제로 제2차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의 '한국 산지가람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기초발표를 시작으로 박종관 건국대 교수가 '한국 산사의 자연임지 특성', 엄기표 단국대 교수가 '법주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양은경 부산대 교수가 '부석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한정호 동국대 교수가 '통도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봉정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김정희 원광대 교수가 '선암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송은석 동국대 교수가 '대흥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주수안 고려대 교수가 '마곡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추진위는 2017년까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유네스코의 현지실사를 거친 뒤, 2018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다영 기자



第十次中國廈門國際佛教用品展覽會 The 10th China Xiamen International Buddhist & Crafts Fair



WeChat

행사일자 2015년10월15일-10월19일 까지

행사장소 중국 샤먼국제회의전시센터

세계 최대의 불교용품 무역광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시개최>

第7次廈門國際菜食養生展覽會, 2015年中國廈門國際茶產業博覽會